

어린이 책꽂이



▲꽃=소리말과 그림만으로 이루어진, 글 없는 그림책....

(사계절·8000원)



▲줄로티=1998년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을 수상한 독일 작가 토미 웅거러가 그림형제의 '빨간모자'를 유쾌하고 아름답게 뒤집어 새로운 이야기로 꾸민다.

(살림어린이·1만원)



▲장승개편='초등학생이 처음 읽는 우리 고전' 시리즈의 첫 번째 권. '법을 넘어 인정을 쫓는 사람들'과 '지혜로운 명관'으로 나눠, 재판과 관련한 옛 이야기 10편을 모았다.

(웅진주니어·8500원)



▲경복궁에 간 불도깨비=하늘의 불도깨비 형제가 조선의 궁궐인 경복궁 곳곳을 살펴보고 조선 왕조의 정교한 건축미와 예술미에 감탄한다는 내용이다.

(시공주니어·1만원)



▲꽃밭의 장군=1961년 초판을 낸 후 50년 만에 다시 출간된 기념판. 영국작가 재닛 차터스의 작품이다.

(뜨인돌어린이·1만1000원)



▲하늘의 별은 누가 뿌렸을까?=신인작가 이윤지씨의 첫 창작그림책.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 상상력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로 소녀가 작은 새와의 우정으로 별과 아름다운 은하수를 만들어간다는 내용이다.

(학고재·9500원)



▲잃어버린 우리 문화재=도서출판 현암사의 '구석구석 우리문화' 시리즈 첫 번째 권. 해외에 소장돼 있는 우리 문화재를 가운데 대표적인 문화재인 '수월관음도' '몽유도원도' '직지' '외규장각 문서'를 중심으로 나라 밖 우리 문화재를 소개한다.

(현암사·1만원)

▲양말 들판=일본 야마구치 현 시모네세기에 있는 바이코카쿠인 유치원에서 실시한 자연 친화프로그램 '양말 들판'을 소개한다.

(책고공나무·1만원)

착각과 오해 속에 살고있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고릴라

크리스토퍼 차브리스 지음



상상해 보라. 집이나, 사무실에 고릴라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신기한 경험일까.

치는 고릴라를 우리가 착각과 오해로 보지 못할 수도 있다면 그 또한 신기한 심리학적 경험일 것이다.

지난 1999년 미국의 인지심리학자인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와 대니얼 사이먼스는 하버드대 심리학과 건물에서 간단한 실험을 했다.

여섯 명의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눠 한 팀은 검은색 셔츠를, 다른 한 팀은 흰색 셔츠를 입게 한 뒤 농구공을 패스하게 했다.

또 실험에 참가한 다른 학생들에게 검은색 셔츠 팀의 패스는 무시하고 흰색 셔츠 팀의 패스 횟수를 맡았어 세어 달라고 했다.

여기서 중요한 실험 대상인 고릴라가 등장한다. 실험이 한창 진행 중일 때 고릴라의 의상을 입은 한 여학생이 등장, 약 9초간 농구공을 주고받는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들어와 고릴라처럼 가슴을 두드리고는 제자리로 돌아갔다.

실험이 끝난 뒤 "고릴라를 봤나?"는 질문에 참가자 절반 가량이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와 대니얼 사이먼스의 신간 '보이지 않는 고릴라'는 인간의 인지능력에 대한 고정관념과 상식을 뒤집는 책이다.

저자들은 '고릴라 실험' 등 흥미로운 실험결과를 통해 그동안 전혀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었던 상식과 검증받은 지식이 사실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음을 증명해 보인다.

착각과 오해를 하는 것이 인간이고,

이 때문에 우리 주변의 중요한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저자들이 소개하는 일상의 착각은 ▲주의력 착각 ▲기억력 착각 ▲자신감 착각 ▲지식착각 ▲원인 착각 ▲잠재력 착각이다.

이같은 심리학적 착각 때문에 우리는 때론 눈 뜬 잔羹이 되는 것이다.

'고릴라 실험'은 주의력 착각이 가져오는 결과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실험이다. 실험대상자 중 절반 가량의 학생들이 고릴라 의상을 입은 여학생을 보지 못한 것은 패스 횟수를 세는 데 너무 집중했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의 오류를 심리학적으론 '무주의 맹시'(inattention blindness)라고 부른다.

저자들은 실험에서 학생들이 고릴라 의상을 입은 여학생을 보지 못한 것은 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특정 모습이나 움직임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사물이 나타나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



고릴라와 함께 신문을 읽고 있다면 우리는 심리학적 착각 때문에 미처 고릴라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보이지 않는 고릴라'의 미국판 표지사진.

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심리적 오류, 인식능력의 한계를 다양한 실

험결과를 통해 흥미롭게 엮어내면서 오류와 착각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알려준다.

(김영사·1만4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만화가 이원복에게 만화란?

만화로 교양하라

이원복·박세현 지음



'만나라 이웃나라' 시리즈를 그린 이원복 덕석여대 교수의 만화 인생과 철학을 깊이 들여다본 '만화로 교양하라'만 나라 이웃나라 이원복의 가로질러 세상 보기'가 출간됐다.

만화이론가 박세현씨가 이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문일답하는 형식으로 풀어냈다.

지금까지 '만나라 이웃나라' 시리즈에서 다른 각 나라에 얽힌 일화를 엮은 1부 '다시 보는 만나라 이웃나라'에서는 집필을 위해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생생한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때로는 역사의 축을 따라 나라의 경계를 넘고, 사건의 맥을 따라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이해하기 힘들었던 각 나라의 특징들을 세세하게 들려준다.

2부 '만 이원복 vs. 이웃 이원복'에서는 만화가 이원복, 인간 이원복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본다.

어떻게 처음 만화의 길로 들어섰는지, 만화작업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에게 만화는 무엇인지, 요즘의 만화를 어떻게 보는지 등 그의 만화인생과 만화철학이 오롯이 녹아 있다.

이 교수는 "만화야말로 내게는 '교양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을 뒷받침해주는 '자양'이자 나를 '배양'해준 고맙기 그지없는 존재다"고 고백한다.

(알마·1만3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재벌가 손녀 실종사건 추리물

불을 가지고 노는 소녀 1·2

스티그 라르손 지음



'밀레니엄' 시리즈는 지난 2005년 스웨덴에서 1부가 발간된 후 전 세계 46개국에서 5000만권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다.

올 초 출간된 밀레니엄 시리즈 1부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에 이어 2부인 '불을 가지고 노는 소녀'(전 2권)가 나왔다.

스티그 라르손이 쓴 이 시리즈는 드래곤 타투를 한 여성 해커 리스베트와 잡지사 '밀레니엄'의 기자 미카엘이 재벌가 손녀의 실종 사건을 해결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미스터리 물이다.

2부에서는 여주인공 리스베트의 과거가 하나 둘씩 밝혀지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박진감을 더한다.

리스베트는 성 범죄학자와 잡지사 기자가 유럽 성매매 실상을 조사하다 살해당한 사건의 살인범으로 몰리고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자 리스베트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여기에 정부와 경찰마저 두려워하는 베일에 싸인 인물 살라가 가세한다.

3부 '벌집을 날로 찬 소녀'(전 2권)도 곧 출간될 예정이며 1부는 올 12월 '세븐'의 데이비드 핀치 감독, 다니엘 크레이그 주연으로 개봉된다.

(문학대외선 불·각권 1만3000원)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은유와 위트로 그려낸 속내들

가을 파로호

김영남 지음



"저 호수, 호수머니가 없다 / 불편하다 / 뭔가 넣어두었으면 좋겠는데 / 너덜너덜한 생각 거두고 싶는데 // 심플 켈를 모던 이런 단어들만 지나간다 // 내가, 호수머니 되어보려고 한다 / 호수의 거추장스런 손들을 / 모두 한번 거두어주기로 한다 // 갑자기 호수가 사라진다"(가을 파로호 중)

장흥 출신 김영남(54) 시인의 네 번째 시집 '가을 파로호'가 출간됐다. 1998년 문동주문학상, 2002년 중앙문학상, 2006년 현대시작품상 등을 수상하며 끊임없이 시 세계를 확장해온 시인의 도약이 고스란히 담긴 시집이다.

"고향은 바야흐로 푸르게 다시 시에서 돌아온다"는 평을 얻고 있는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도 향수, 사랑, 욕망 등 인간의 가장 내밀한 감정을 총총히 아로새긴 시 50여 편을 선보인다.

시인 특유의 감성은 이번에도 빛을 발한다. 대상을 다채로운 기법으로 은유하는 메타포의 향연이다. 위트 넘치는 지적 상상력의 세계, 그 심부에 자리잡은 수려한 서정의 언어는 발랄한 웃음과 신선한 충격을 선사한다.

시인은 "모든 기법을 수렵해 폭재기로 올라가면 메타포가 있다고 믿는다"며 "이번 시집은 거기에 충실해 내 능력 안에서 '메타포 사진'을 만들고 싶은 욕망으로 썼다"고 말했다.

(문학대외선·7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JHR (Korea Japan Home Republic) insurance. Features a couple, the company logo, and text: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매우 잘 들립니다.', '안보입니다.',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SINCE 1982 www.kjhr.com'. Includes branch locations: 본점, 총장점, 순천점, 목포점 with phone numbers.